


| 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금융위원회 | 보도자료 | | | | 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 |
| | 보도 | 2017.10.31(화) 10:30 이후 | 배포 | 2017.10.31(화) | |
| 책 임 자 | 금융시장분석과장 변 제 호(02-2100-2850) | | 담 당 자 | 이 용 준 사무관 (02-2100-2854) | |

제 목 : 제 2회 금융의 날 기념식 개최

- 금융소비자, 금융기관, 금융당국이 모여 새로운 도약 다짐

1. 행사개요

□ 제 2회 「금융의 날」 기념식이 '17.10.31(화) 10:30, 63컨벤션 그랜드볼룸홀에서 개최되었음

○ 최종구 금융위원장, 최홍식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하여 금융발전 유공 수상자와 금융기관 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하였음

○ 금융발전유공 포상은 '금융혁신', '서민금융', '저축' 세 개 부문에서 총 195명*에게 수여됨

* 훈장(2명), 포장(5명), 대통령표창(19명), 국무총리표창(27명), 금융위원장 표창(124명), 금융감독원장표창(18명)

□ 「금융의 날」은 금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, 금융부문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정*됐으며 올해 제 2회**를 맞이함

* '16.3.22일 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

** '64부터 이어 온 「저축의 날」을 다양한 금융상품의 등장과 금융의 역할 다변화 등 최근 흐름을 반영하여 「금융의 날」로 확대개편(작년10.25일 1회)

2. 주요 수상자 소개

(1) 훈장 수상자

- **녹조근정훈장**(금융혁신부문)에 **장범식**(숭실대학교 교수)님, **국민훈장** **석류장**(서민금융부문)에 **정재성**(신용회복위원회 구미지부장)님이 수상함

<주요 공적 내용>

- **(장범식)** '16년부터 현재까지 **금융발전심의회**의 위원장으로서 **서민금융진흥원** 설립·**클라우드펀딩** 정착·**중금리 대출** 등 금융혁신을 위한 성과창출에 기여
- **(정재성)** **신용회복위원회** **천안, 포항, 구미 지부** 개설준비 위원장으로서 취약계층 채무자 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**금융 상담**을 받을 수 있는 **전국 네트워크** 구축에 기여

(2) 유명인 수상자

- 前 프로야구감독 **이만수**님이 **국민포장**을, 시인·소설가 **안중원**님이 **국무총리표창**을, 가수 **황치열**님이 **금융위원장표창**을 수상함

<주요 공적 내용>

- **(이만수)** '82년 삼성라이온즈 입단시절부터 현재까지 **꾸준한 저축습관**을 실천 중이며, 은퇴 후 비영리재단(헬크파운데이션)을 설립하여 **국내외 어려운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**
- **(안중원)** **노숙자 무료급식 제공, 꽃동네 후원, 장학금 기부** 등을 통해 나눔을 실천중이며,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**장학재단 설립**이라는 목표를 위해 꾸준히 저축
- **(황치열)** 무명가수시절부터 현재까지 **저축을 생활화**하고 있으며, **팬들과 함께 데뷔 10주년 맞이 연탄나눔봉사, 아동양육시설 후원, 결식아동을 위한 기부** 등 다양한 선행을 실천

(3) 그 외 주요 수상자

- **꾸준한 저축습관**은 물론 **나눔의 정신**을 실천 중인 **사회복지사 이강일**님(국민포장), **청년창업가 박예나**님(대통령표창), **구두미화원 윤재천**님(국무총리표창), **김나연** 학생(금융위원장표창)도 여러 수상자분들을 대표하여 표창을 수여받음

3. 금융위원장 축사

-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‘금융의 양면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’라고 강조함
 - 금융은 사람들이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 발전해 왔으나,
 - 쏠림현상, 양극화 확대, 신뢰 훼손 등 금융에 내재된 속성이 사회적 역기능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언급함
- 금융‘기관’이라는 단어 속에는 금융이 담당해야할 공공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담겨있는 만큼,
 - 금융기관들은 금융의 본성을 잃지 않으면서 금융이 초래 가능한 사회적 역기능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함
 - 감독당국 역시 금융을 억제하고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금융 본연의 순기능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함

[붙임1] 제 2회 금융의 날 포상대상자 명단

[붙임2] 제 2회 금융의 날 금융위원장 축사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